

# KIA 호자 외인 '터커' "어떤일 벌어질지 몰라"

사실상 5강행 물건너가 선수들 목표 의식 희미...선수단에 경종 울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KIA타이거즈 외국인타자 프레스턴 터커(29)가 선수단에 경종을 울렸다. 터커는 지난 8월 31일 롯데아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역전 결승 투런홈런을 날리고 4-2 승리를 이끌었다. 0-2로 뒤진 KIA는 동점을 만든 뒤 터커의 역전포에 힘입어 2연승을 달렸고 7위를 유지했다.

3번 우익수로 출전한 터커는 이날 4타수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1회말 1사3루에서는 롯데 선발 김원중과 11구 접전을 벌인 끝에 볼넷을 골라 홈루해 첫 득점의 발판을 놓았다. 3회에서도 선두타자로 등장해 볼넷을 골라냈다. 유인규

에 좀처럼 말려들지 않는 선구안이었다.

그리고 2-2로 팽팽한 4회말 2사 후 박찬호가 기습번트 안타로 출루하자 김원중의 3구 몸쪽 낮은 직구(147km)를 견어올렸다. 제대료 맞은 타구는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기는 125m짜리 홈런으로 이어졌다. KIA 마운드는 터커의 홈런을 끝까지 지켜 승리를 따냈다.

시즌 8호 홈런이자 8번째 결승타였다. 팀내에서는 최형우(9개)에 이어 2위의 기록. 3월19일 고타율에 4할9푼의 장타율을 기록했다.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해 랭킹에 잡히지 않지만 장타율은 외국인 타자 가운데 5위(전체 13위),

타율은 4위(전체 11위)에 있다. 득점권 타율(.309)은 외국인 타자 가운데 두산 페르난데스에 이어 2위이다.

교체 외인으로 입단체 팀의 기동으로 자리잡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터커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기를 마치고 경기 수훈 선수로 단상에 올라 의미 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매순간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치려고 집중하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결승홈런이 나와 기쁘다"고 역전 결승포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남은 기간도 기록없는 플레이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팀 성적에 개인 성적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는 선언이었다.

팀은 20경기를 남겨놓았지만 5위 NC에 8경기 차로 뒤져 있다. 사실상 5강행은 물건너갔고 순위 싸움도 무의미하다. 선수들도 목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기이다. 이런 가운데 터커의 말은 울림이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는 주문이었다. 어떤만 뺏을게 아니라 주장까지 시켜야 할 판국이다.

## US오픈 마무리 정현, 부상 이후 첫 출전 대회 '만족'

정현, 32강서 '세계 2위' 나달에 0-3 패배  
"톱 랭커 상대 쉽지 않아...전체적 성장해야"



정현(23·170위·제네시스 후원)이 부상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의 활약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현은 1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의 메인 코र्ट인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US오픈 3회전(32강)에서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에 0-3(3-6 4-6 2-6)으로 완패했다.

나달과의 경기 자체는 아쉬움이 남으나 부상 복귀 후 처음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 개인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면서 견재함을 알리는 등 소식이 컸던 대회다.

정현은 경기 후 소속사 IMG를 통해 "경기가 안 풀렸다고 보다는 톱 랭커들과 경기를 할 때

는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나달은 예전에 비해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한 것 같다. 서브도 보다 공격적으로 하는 등 압박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현은 US오픈 3회전까지 진출한 것에 대해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지만 공백 후 메이저대회에서 예선 3경기를 치르고 본선에서도 5세트 경기를 두 번이나 했다.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은 "경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체력, 서브 등 전체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나도 실망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자 나달도 정현이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온 것을 반겼다.

나달은 경기 후 "정현은 몸 상태가 정상일 경우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다"며 "부상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정현에게 좋은 대회였고 앞으로 그가 건강하게 커리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 선수단 앞에서 고개 숙인 이용규 "다시 받아줘 감사하다"

한화 선수단, 이용규 사과에 박수로 화답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트레이드 요구 파동으로 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한화 이용규가 1일 오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를 찾아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에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한화이글스는 지난 3월 22일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규의 정계를 1일부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

구단 징계가 해제된 한화 이글스 베이스볼팀 이용규(34)가 경기장을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했다. 이용규는 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방문해 KT 위즈전을 앞둔 한화 선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초, 돌발 트레이드 파동을 일으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지 6개월만이다.

이용규는 당시 FA 계약을 맺고 스프링캠프까지 정상적으로 참가

를 가졌다. 지난 3월초, 돌발 트레이드 파동을 일으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지 6개월만이다.

했으나 시즌 개막 전 구단에 불만을 품고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며 항명에 가까운 파동을 일으켰다. 당혹감을 느낀 구단은 이용규에게 무기한 활동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최근 이용규가 거듭 사죄의 마음을 전해왔고 구단이 이를 수용, 지난 8월31일 전격 징계해제 조치로 이어졌다. 이용규는 앞으로 서산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장을 찾아 먼저 한용덕 감독에게 사과한 이용규는 이후 훈련을 준비하는 선수단을 향해 외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용규는 선수단을 향해 "한 명의 선수로서 팀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해 굉장히 죄송하다. 앞으로 잘못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 받아주시는 팀 선배들과 동기, 후배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용규의 사과를 경청한 선수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 백승호, 지로나 떠나 독일 분데스2 다름슈타트 이적

백승호(22)가 오랜 세월 정들었던 스페인 무대를 떠나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다름슈타트로 이적한다.

다름슈타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백승호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3년으로,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등번호는 14번이다.

이로써 백승호는 차범근 전 수

원 감독, 김진국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 지동원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네 번째로 다름슈타트에 몸을 담게 됐다.

백승호는 당초 지로나와 오는 2020년 6월까지 계약돼 있었다. 지로나는 비유럽선수 제한 규정 제약으로 백승호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 못했고, 결국 그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백승호는 "다름슈타트는 내게



굉장히 흥미로운 클럽이다. 내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